

올 채용 '좁은 문·수시·AI·블라인드' 업무적합·타이밍·맞춤형지원 중요

잡코리아 채용시장 트렌드 전략
인사담당자 48% 채용 축소 전망
'기업 맞춤형 지원' 합격 가능성 ↑
미리 서류 준비해 채용공고 대비

올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채용경기 전망이 어두울 전망이다.

최근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명중 한명(48.4%)은 '올해 채용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39.7%였고 '지난 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1.9%에 그쳤다.

잡코리아는 6일 취업준비생들이 이처럼 좁아진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2020 채용시장 트렌드 대비 전략'을 통해 조언했다.

◆**좁아진 채용의 문... '기업 맞춤형 인재' 되야**

우선,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루뭉술한 지원보다는 특정 산업계나 직무를 선택

해 '기업 맞춤형 지원'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입사 후 포부와 지원동기 등을 통해 지원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오랜동안 준비했음을 시사하도록 지원서를 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지원 업무 분야 관련 산업 주요 트렌드와 인제상,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이때 기업에 집중해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무엇에 매료됐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 아는가 아니라 지원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원동기를 밝힐 때는 자신의 회사선택 기준을 밝히고, 이에 지원하는 회사가 어떻게 부합했는지,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자"고 했다.

◆**수시채용 확대... '타이밍'이 중요**
수시채용 확대에 따라 공채 일정

중심으로 맞춰진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전략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SK그룹, 주요 금융기업 등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상시채용이나 공채와 달리 수시로 채용공고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므로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 맞는 직무를 미리 파악해뒀다가 관련 공고가 나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인공지능 채용...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활용**

자소서 평가부터 면접까지 인공지능(AI)을 채용전형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AI 채용은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지원하는 기업의 핵심인재와 관련한 공통된 역량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뒀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인재상이나 사업내용과 관련한 표현이나 단어를 자주 사용해 조직 적합성, 직무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확산대전 2019'에서 구직자들이 AI 프로그램을 통한 채용 면접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떠돌아다니는 자소서를 베껴거나 식상한 표현도 삼가는 게 좋다. AI 면접에 대비해서도 과도한 표정이나 몸짓 등 과장된 모습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AI를 통한 음성과 자세 인식에 대비해 자신이 어떤 말투, 음성, 자세로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모의면접에 참여해 평가를 받아보거나, 영상으로 직접 찍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 '직무적합성'이 중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블라인드 채용에도 대비하자. 지난해 잡코리아가 상반기 대기업 대졸신입공채 계획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63.7%는 블

라인드전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전년 조사와 비교해 30%포인트 블라인드 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직무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지원 직무를 정하고 해당 직무의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만 너무 많은 직무 경험을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앞서 실제 경험이나 수행 프로젝트보다 과장하는 것은 자칫 전체 지원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 경험에 기반해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어떻게 역량을 성장시켜왔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교, 영유아 놀이체육시장 1위 브랜드 '트니트니' 인수 /대교

대교, 영유아 놀이체육 1위 '트니트니' 인수 (브랜드)

주식 2만주 290억 취득... 지분 100%

대교는 영유아 놀이체육시장 1위 브랜드인 트니트니를 인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교는 이달 3일 트니트니 운영사인 티엔홀디스 주식 2만주를 290억 원에 취득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트니트니는 영유아 대상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전문기업

으로, 문화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국의 2000여유아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대교는 이번 트니트니 인수를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신체 활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기업으로서 연령층을 확대해 향후 전방위적으로 교육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 권대봉 총장 취임

"AI선도·글로벌 리딩대학으로 혁신"

영어권에 글로벌 캠퍼스 구축
실무교육으로 마이스터대 도전

권대봉 인천재능대 신임 총장은 6일 오후 인천재능대에서 열린 제16대 총장 취임식에서 인천재능대를 AI(인공지능)선도대학, 산학일체형 마이스터대, 글로벌 리딩대학으로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장이 되는 영광에 앞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OECD 최하의 출산율 등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학들이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총장은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은 모든 산업의 DNA를 근본적으로 바



권대봉 인천재능대 신임 총장이 6일 오후 교내에서 열린 인천재능대 제16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꾸고 있다"면서 "AI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공지능컴퓨터전공 등 IT 계열 뿐 아니라 21개 모든 학과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변화와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교수들에게 당부했다.

권 총장은 교육부가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마이스터대학에 도전하겠다고면서 "권역별 1~2곳씩 시범 선정해 운영하는만큼 매우 어렵겠지만, 산업현장 중심 실무 교

육을 제대로 해서 산학일체 마이스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산업계 대표님들께서도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인천재능대의 교훈인 자율, 창의, 봉사를 학생들이 익혀 재능을 개발하는데 대학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 인재 양성하는 글로벌 리딩대학으로 웅비시키겠다"며 "영어권에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재능학원 박성훈 이사장, 고려대 이기수·어윤대 전 총장 등 학내외 귀빈과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권 신임 총장은 고려대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쌍용그룹 국내의 현장에서 8년간 실무 경험을 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에서 성인계속교육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용수 기자

서울여대, 9일 인성교육 학술토론회 개최

'세대를 연결하는 인성교육' 주제

서울여자대학교는 바롬인성교육연구소가 오는 9일 서울시 노원구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제9회 인성교육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세대를 연결하는 인성교육'을 주제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급증했던 인성교육에 대

한 관심이 잦아든 시점에서 초중고교와 성인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연구소는 서울여대 인성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주민 대상 인성교육 위탁운영·인성교육캠프·인성교육프로그램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2.2%→2.0%... 2년만에 0.2%p ↓

연간 159억 이자부담 경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 2.25%에서 2.2%로 0.0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0.2%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이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경감된다. 상환기준소득 상향에 따라 약

19만명이 연간 174억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도 기존 6% 단일금리 방식에서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에 연차가산금리(2.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1.5% 수준 낮아진다.

/한용수 기자